

전북도 '1시군 1생태 사업' 제대로 하자

전북도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1시군 1생태 사업'이 일부 시군의 소극적인 추진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는 3월 중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1천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생태관광 사업이 일부 시·군이 추진의지가 약하거나 이해부족으로 불필요한 기반시설이 구축되는 등 본래의 취지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이 3년차임에도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타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 사업추진이 원만치 못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실제로 김제시의 경우 김제 벽골제 종합 개발계획과 병행 시행계획이 추진되면서 2년째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당초 삼천천이 사업대상지였지만 효천지구 개발 기대가 커지고 재산권 침해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커지면서 전주천으로 변경을 시도한 바 있다. 부안군도 줄포생태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검토 중에 있다. 이렇듯 일부 지자체의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의지 부족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

진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고창군의 경우는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사업이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상품화가 높아 전북투어패스로까지 연계하고, 장수군도 금강발원지인 뜰봉생태지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우수 추진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전북도의 컨설팅이 잘 돼 계획한 대로 성과를 내기 바란다. 서면과 현장 실사를 한다고 하지만 컨설팅이 철저히 진행되고, 다음은 그 결과에 따라 시·군이 잘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생태관광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기반조성을 이루게 해 지속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시·군이 안 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1시군 1생태 사업'을 제대로 할려면 도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 패널티를 주든 지, 징벌을 하든 지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도는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강한 의지로 독려해야 한다. 저개발로 인해 낙후된 전북도가 생태관광의 면에서 타지보다 강점이 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더 확실하게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관련 당사자나 시민,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이해하고 협력해야만 이 일은 가능할 것이다.